

## 직업과 일에 대한 인식 변화

- 안정적 직업과 일의 중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함.
- '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'는 인식은 2006년 51.6%에서 2014년 61.1%로 9.5%p 증가하였으며, 특히 남자(53.4% → 64.6%), 고졸 이하(51.3% → 62.5%), 30대(46.4% → 57.7%)에서 크게 증가함.
- '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'는 인식은 20대 이하가 2006년 60.1% → 2014년 64.1% 증가하였으며, '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'는 인식은 20대 이하(66.5% → 55.2%)에서 가장 크게 감소함.
- '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'이라는 인식은 남자(55.7% → 58.4%), 대졸 이상(49.2% → 53.8%), 20대 이하(39.3% → 58.6%) 및 30대(46.4% → 47.9%)에서 2006년보다 2014년에 증가함.
- '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있어야 한다'는 인식은 2006년 52.5%에서 2014년 47.8%로 4.7%p 감소함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직업과 일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직업생활뿐 아니라 국가 정책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침.

- 과학기술의 발전, 세계화, 정보화로 인해 산업구조와 직업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.
  - 일에 대한 의식 변화는 개인의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 개발,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침.
- 따라서 이 글은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,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훈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『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(2006, 2014)』

-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『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』 2006년, 2014년도 조사 자료
  - 분석 대상: 2006년은 만 18~64세 이하 취업자 3,686명, 2014년은 15세~64세 이하 취업자 939명
- 분석 문항: 일의 가치에 대한 설문은 '①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', '② 일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', '③ 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', '④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', '⑤ 직업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', '⑥ 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', '⑦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'의 7개 문항으로 구성
  - 각 문항은 5점 척도(① 매우 반대한다, ② 반대한다, ③ 보통이다, ④ 동의한다, ⑤ 매우 동의한다)로 측정



02 일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

취업자의 70% 정도가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며,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는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함.

- ‘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’이라는 인식은 2006년 71.2%에서 2014년 69.1%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.
- ‘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’는 2006년 51.6%에서 2014년 61.1%로 9.5%p 증가함.
  - ‘일은 사회적 의무’라는 인식(60.2% → 65.5%), ‘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’는 인식(59.5% → 60.9%), ‘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’이라는 인식(53.0% → 54.6%)도 약간 증가함.
- ‘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있어야 한다’는 인식은 2006년 52.5% → 2014년 47.8%로 감소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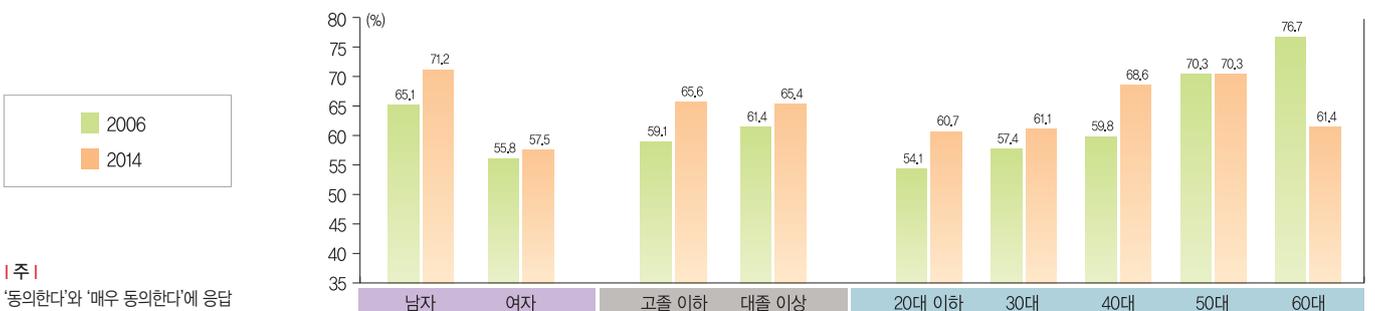
[그림 1] 2014 직업과 일에 대한 인식 변화

주 | '동의한다'와 '매우 동의한다'에 응답한 비율

03 인적 속성별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

‘일은 사회적 의무’라는 인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증가폭도 큼.

- 성별로 ‘일은 사회적 의무’라는 인식은 남자가 2006년 65.1% → 2014년 71.2%로 6.1%p 증가하였고, 여자는 2006년 55.8% → 2014년 57.5%로 1.7%p 증가함.
- 연령별로는 20대 이하(+6.6%p), 30대(+3.7%p) 및 40대(+8.8%p)는 증가한 반면 60대(-15.3%p)는 감소함.
  - 특히 20대 이하(54.1% → 60.7%)와 40대(59.8% → 68.6%)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.



[그림 2] ‘일은 사회적 의무이다’라는 인식의 변화

주 | '동의한다'와 '매우 동의한다'에 응답한 비율

‘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’는 인식은 남자, 고졸 이하, 30대에서 크게 증가함.

- 성별로는 ‘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’는 인식이 남자가 2006년 53.4% → 2014년

64.6%로 11.2%p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2006년 49.9% → 2014년 56.3%로 6.4%p 증가함.

-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006년 51.3% → 2014년 62.5%로 11.2%p 증가하였고, 대졸 이상은 2006년 51.9% → 2014년 60.0%로 8.1%p 증가함.
- 연령별로는 2014년 40대(63.8%)와 50대(63.8%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.
  - 2006년에 비하여 2014년에 인식이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30대(46.4% → 57.7%), 40대(53.7% → 63.8%), 20대(49.6% → 57.2%)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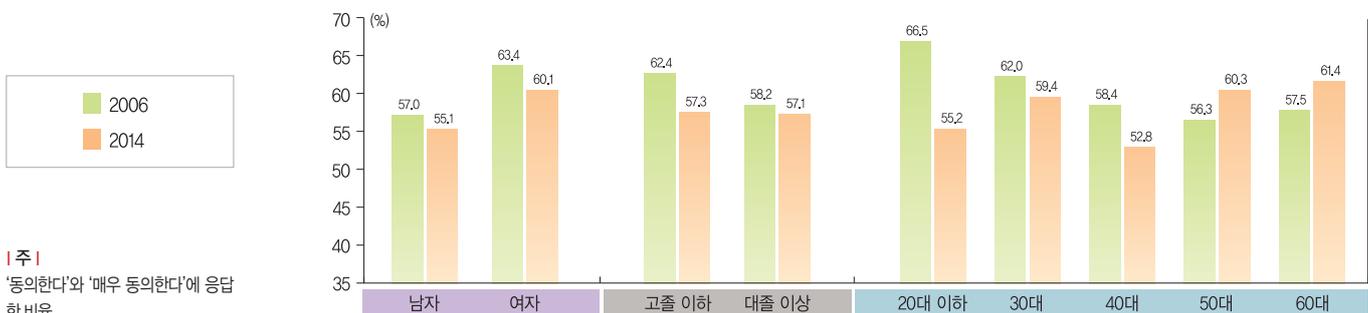
주 | '동의한다'와 '매우 동의한다'에 응답한 비율

[그림 3] '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다'는 인식의 변화

- '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'는 인식에서는 20대 이하가 2006년 60.1% → 2014년 64.1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큼.
  - 성별로는 남자는 2006년 62.0% → 2014년 64.4%, 여자는 2006년 57.3% → 2014년 55.8%이며,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006년 57.2% → 2014년 59.9%이나 대졸 이상(62.2% → 61.7%)은 증가하지 않음.

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'는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가장 크게 감소함.

- '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'는 인식은 5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006년 대비 2014년 감소함.
  - 인식의 감소폭은 20대 이하(66.5% → 55.2%)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일의 가치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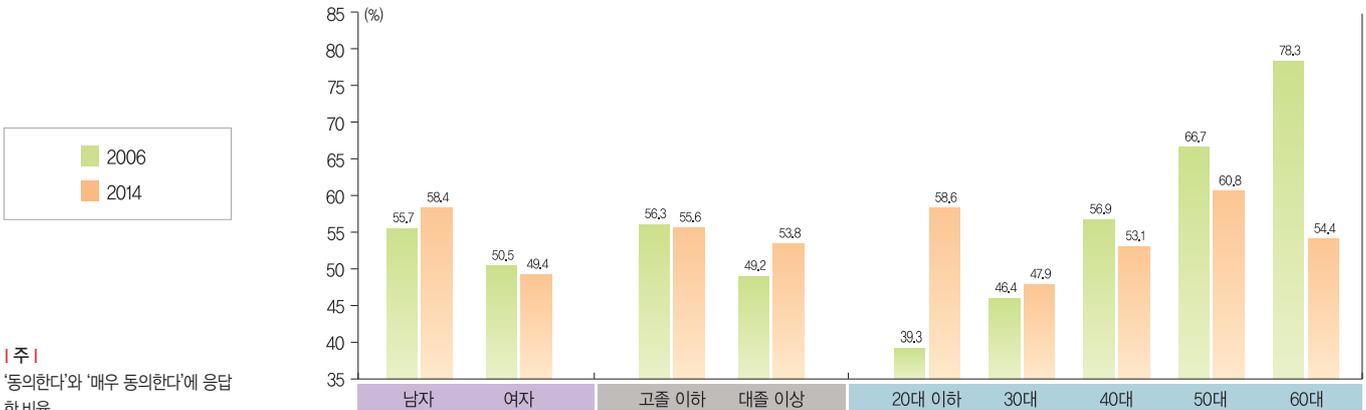
주 | '동의한다'와 '매우 동의한다'에 응답한 비율

[그림 4] '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'는 인식의 변화

'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'이라는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60대에서는 급격히 감소함.

- 성별로 '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'이라는 인식은 남자가 2006년 55.7% → 2014년 58.4%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자는 2006년 50.5% → 2014년 49.4%로 감소함.
-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(49.2% → 53.8%)은 증가한 반면 고졸 이하(56.3% → 55.6%)는 약간 감소함.

-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006년 39.3% → 2014년 58.6%로 19.3%p 증가함.  
 - 30대(2006년 46.4% → 2014년 47.9%)는 약간 증가한 반면 40대, 50대 및 60대는 감소함. 특히 60대는 2006년 78.3% → 2014년 54.4%로 23.9%p 감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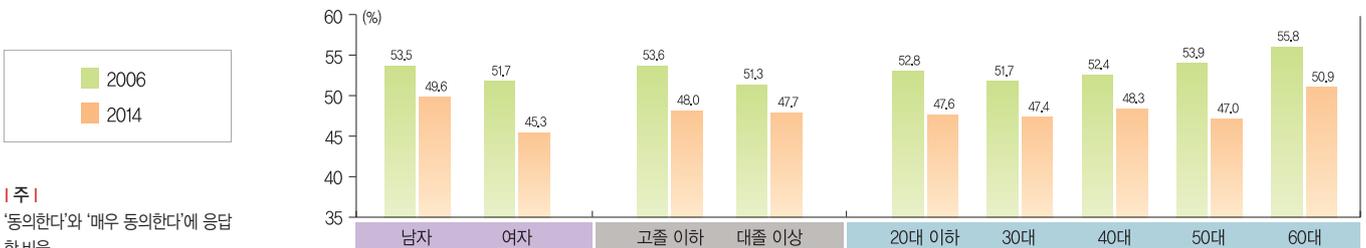


주 | '동의한다'와 '매우 동의한다'에 응답한 비율

[그림 5] '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'라는 인식의 변화

『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』는 인식은 성별, 학력별, 연령별 집단에서 모두 감소함.

-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』는 인식은 남자(53.5% → 49.6%)가 여자(51.7% → 45.3%)보다, 고졸 이하(53.6% → 48.0%)가 대졸 이상(51.3% → 47.7%)보다, 50대(53.9% → 47.0%)가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폭이 더 큼.



주 | '동의한다'와 '매우 동의한다'에 응답한 비율

[그림 6] '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』는 인식의 변화

04 시사점

-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안정적 직업과 일의 중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됨.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,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
-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음. 여성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위하여 학교단계에서 여학생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직업의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직업체험 기회 확대가 필요함.
- 50·60대 사이에서 일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함.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50·60대의 지속적인 직업의식 함양, 구직 또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강화가 필요함.
- 전 연령층에서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능력보다 학연·지연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감소함. 이는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함.

정윤경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)